

“한 번 주사로 한 달 효과”... 인벤티지랩, CNS 치료 혁신

(중추신경계)

미국 신경과학회서 임상결과 발표
한달간 안정적인 약물 농도 유지
플랫폼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인



인벤티지랩.

약물 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은 18일(현지시간) 개최된 ‘2026 미국신경과학회(AAN 2026)’에 포스터 발표자로 참석해 자사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파이프라인 2종의 임상 1상 주요 결과를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AAN은 신경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대회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학회에서 인벤티지랩은 자사 핵심 기술인 장기지속형 주사제 제조 플랫폼 ‘IVL-DrugFluidic’을 적용해 개발 중인 IVL3003(치매치료제)과 IVL3004(약물·알코올중독 치료제)의 임상 1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회사의 장기지속형 제형 플랫폼 기술이 다양한 중추신경계(CNS) 질환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되는 치매치료제 IVL3003은 건강인 대상 임상에서 매일 복용하는 경구제와 달리 혈중 약물 농도가 4주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투여 용량이 높아질수록 체내 약물 노출량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는 예측 가능한 특성이 확인됐다.

또 혈중 농도에 상응하여 치매 유발 물질인 아세틸콜린 분해효소가 억제되는 약리적 반응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그 억제 수준은 경구 아리셉트 반복 투여군에서 관찰되는 수준과 유사한 범

위로 확인되어 약물이 체내에서 의도한 대로 작용하고 있음이 뒷받침됐다.

약물·알코올중독 치료제 IVL3004 역시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초기 과다 방출이 없고, 기존 장기지속형 제형과 비교했을 때 유효 혈중 농도가 동등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부작용은 완화된 양상이 관찰됐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발표를 통해 장기 지속형 제형 기술이 다양한 약물에서도 일관된 방출 제어 특성을 구현할 수 있음을 임상에서 확인하는 한편, 환자의 복약 편의성과 치료 지속성 개선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와 약물·알코올중독은 질환의 특성상 환자가 매일 스스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1회 주사하는 것만으로 한달간 안정적인 약물 농도가 유지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가장 획기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장기지속형 주사제 시장이 글로벌 제약 산업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학회 발표는 회사의 플랫폼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는 “현재까지 진행한 3개의 파이프라인 임상 시험 모두에서 안정적인 혈중 농도 유지와 용량 비례적 특성이 일관되게 확인되었다”며 “서로 다른 기전의 약물에서 동일한 결과가 반복된다는 것은 당사 플랫폼이 특정 약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술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에 쉽게 접근하고 일상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성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신제품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윤빛 피부 회복 아이템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일상 속 자극으로 지친 피부에 즉각적인 생기와 윤기를 선사하는 신제품 ‘윤조에센스 스미스트(사진)’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설화수 대표 제품 ‘윤조에센스’의 정수를 그대로 구현해 뿌리는 순간 피부 본연의 힘을 깨우고 생동감 넘치는 피부를 완성해 준다. 특히 500시간 숙성 인삼 유래 성분을 담은 설화수의 독자 성분 림파나스를 함유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삼바로직스, AACR 첫 참가... CRDMO 역량으로 고객 공략

(위탁연구개발생산)

美암연구학회 세계 최대 규모 행사
CRDMO 통합 서비스 역량 홍보
전임상·초기 임상 단계 고객 확보



삼삼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최대 암 학회인 ‘AACR 2026’ 현장에서 기업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삼삼바이오로직스

삼삼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막을 올린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 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삼삼바이오로직스는 ‘삼성 오가노이드’ 등 위탁연구(CRO)부터 위탁개발(CDO), 위탁생산(CMO)을 모두 아우르는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역량을 적극 알리며 고객사와 적극 교류했다.

AACR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암 학술 행사로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의 암 관련 연구자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 2만2000명 이상이 참여한다. 올해는 ‘전 세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암 과학의 진전’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

삼삼바이오로직스의 AACR 참가는 올해가 처음이다. AACR이 초기 개발 단계인 전임상·초기 임상 단계 연구 성과 발표가 집중되는 행사인 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초기 개발 단계에 있는 고객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CRO·CDO 수요가 높은 개발 초기부터 고객사와 협업해 향후 상업 생산까지 이어가는 ‘조기 선점 효과’를 노린다.

삼삼바이오로직스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각종 발표를 진행하며 회사의 CRDMO 경쟁력을 알린다.

특히 21일에는 알렉시스 산타나 오가노이드 세일즈 디렉터가 ‘삼성 오가노

이드: 항암 신약 개발에서의 임상적 관련성 증진’에 대해 소개한다. 높은 환자 유사성을 가진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활용한 신약 개발 성공률의 향상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삼성 오가노이드가 실제 환자의 유전적 특성과 약물 반응을 그대로 재현하며 임상 결과와의 높은 상관성을 입증한 데이터를 공유한다.

아울러 삼삼바이오로직스의 이중항체

플랫폼 ‘에스-듀얼’의 높은 치료·제조 효율성과 관련한 최신 지견도 나눈다.

삼삼바이오로직스는 기존의 대량 상업생산 외에도 보다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초기 개발 단계부터 최종 상업화에 이르는 엔드 투 엔드 CRDMO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CRO 서비스인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론칭해 CRDMO를 넘어 CRO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올해 3월에는 마스터세포은행(MCB) 생산·배터 제작 서비스를 내재화해 CDO 서비스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등 맞춤형 CD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삼바이오로직스 정형남 바이오연구조장(부사장)은 “혁신 신약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CRO·CDO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신뢰받는 신약 개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라엘 통기성 살린 쿨 생리대

우먼 웰니스 브랜드 라엘이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어리 쿨 생리대(사진)’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화학적 냉각 성분 없이 소재와 통기성 중심 구조 설계만으로 시원한 착용감을 구현한다.

타시트에는 상처용 거즈에서 착안한 3중 에어 메쉬 구조를 적용해 혈액은 빠르게 흡수하고 습기 배출과 통기성은 극대화했다. 일반 생리대 대비 공기투과도를 약 25% 개선했으며, 실제 용액 흡수 후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10분 만에 피부에 닿는 커버 표면 온도가 3~4도가량 낮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이정하 기자

종근당, ‘CKD-703’ 글로벌 임상 개시

암세포만 사멸시키는 기전 갖춰

종근당은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반 항암 신약 ‘CKD-703’의 글로벌 임상 1/2a상 시험을 위한 미국 내 첫 환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비소세포폐암(NSCLC) 및 다양한 고형암 환자에서 CKD-703의 안전성 및 최대내약량을 확인한다. 개념입증을 기반으로 최적 용량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는 비롯해 한국과 미국의 약 12개 기관에서 진행되며 미국 오하이오주 소재 가브레일

암센터에서 첫 환자를 등록했다.

CKD-703은 혁신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이다. 종근당이 독자 개발한 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c-Met) 타겟의 단일클론항체에 차세대 AD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개발 중이다.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기전을 갖췄다.

지난해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 1/2a상을 승인받은 데 이어 올해 2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상반기 환자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향후 유럽 등으로 임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하 기자

동국생명과학, ‘이오파미돌’ 유럽시장 진출

원료의약품 품질 인증 획득

동국생명과학은 지난 16일 유럽에서 ‘이오파미돌(API)’에 대해 원료의약품 품질 인증(CEP)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CEP는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가 발급하는 원료의약품 품질 인증 제도로, 유럽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꼽힌다.

동국생명과학의 이오파미돌은 비이온성 요오드 조영제, CT 검사 등에 쓰인다. 특히 글로벌 영상진단 시장에서 원료의약품 품질 확보는 완제의약품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정하 기자

동국생명과학은 이번 CEP 인증이 유럽 및 선진국 시장 확대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글로벌 사업 구조를 구축해 주요 시장을 연결하는 공급망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도 MRI 조영제 ‘가도부트론(API)’ 허가를 취득하며 중국 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했다. 중국은 영상진단 시장 성장률이 높은 국가로 조영제 수요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도부트론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제품 믹스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정하 기자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미감수’ 20주년 재단장

LG생활건강의 클린뷰티 브랜드 더페이스샵은 ‘미감수 브라이트 클렌징 폼(사진)’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재단장한 제품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첫 선을 보인 미감수 브라이트 클렌징 폼은 쌀뜨물로 세안하면 얼굴이 밝아진다는 한국의 전통 미용 비법을 담아, 순화면서도 강력한 세정력을 갖췄다. 더페이스샵의 쌀 연구 노하우를 집약했고 경기 여주산 무농약 프리미엄 쌀을 사용했다. /이정하 기자